

문학이 죽은 시대, 김수미의 산문 왜 짱인가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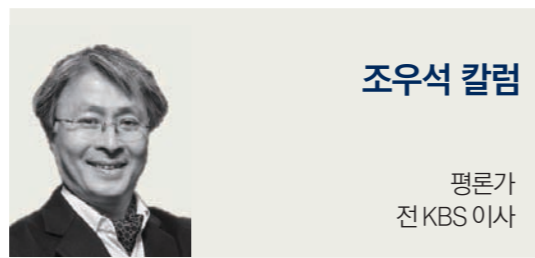
연배와 동갑

오래전의 일이다. 대학에 처음 발령받아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보통은 나이를 말하기 꺼리는데 그날따라 나이와 출신 학교 등을 먼저 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필자의 순서가 지나고 나서 휴식시간이 되었는데 비슷한 또래의 교수가 다가와 자기소개를 했다. 한 살 연하의 같은 학번이었다.

이 친구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연배신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마치 형님 대하듯이 했다. 보통 한 살 차이에 같은 학번이면 친구처럼 대하든지 서로 존대를 하면 좋는데 그보다 형처럼 대하니까 조금 불편했다. 이 친구는 연배의 뜻을 '연상'과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연배(年輩)는 '나이가 비슷한 정도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즉 '일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 또는 일정한 정도에 이른 나이'를 뜻한다. 그러나 동갑과는 조금 다르다. 동갑(同甲)은 '육십갑자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나이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1월1일생과 12월31일생은 동갑이었다. 요즘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를 세는 기준이 달라졌다. 언젠가는 "과거에는 나이 대신 띠를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 · 한국어학회 회장



조우석 칼럼

평론가
전 KBS 이사

지난주 고백했던 '글쟁이 밸런스' 김수미에 대한 관심은 뜻밖에도 최근에 봤던 그의 신앙 간증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다. 꼭 1년 전 간증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 특히 1960년대 초 송의여중 시절 서울시 백일장대회에 나가 장원을 따먹은 얘기에 배꼽을 쥐었다. 스토리는 이렇다. 전북 군산에서 막 올라와 심한 사투리를 쓰던 김수미는 성적만은 전교 1-2등이었다.

그럼에도 친구들에게 김수미는 심한 사투리를 쓰는 촌년으로 통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쇠때(열쇠의 사투리)란 별명까지 붙었다. 담임이 양호실에 가서 약 줘 달라고 심부름시켰던 게 발단이다. 달려가 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돌아와서 "선생님, 쇠때가 없어요, 쇠때가" 하며 큰일이 난 듯 호들갑을 떨자 교실이 삼시간에 와, 하고 뒤집혀 버렸던 것이다.

김수미가 나름 복수극을 꾸렸다. 그게 니미뽕 사건. 친구들이 "애, 너네 시골에선 잉크병을 뭐라고 하나?" 하며 놀리듯 묻자 "응, 니미뽕이라고 해" 하고 천연스레 대꾸해 버린 것이다. 다음 날 당장 학부모들이 촌년 하나가 우리 애들 망친다고 들고일어났다. 등교 때 덩치 큰 배구부 여학생들이 대뜸 목살부터 잡았다. 김수미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되받아쳐 버렸다.



'글쟁이 밸런스' 김수미처럼 우리말에 대한 욕망, 문학에 대한 갈증을 풀어 온 사람도 드물다.

스카이데일리

"우리 군산에선 다 그렇게 부르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 XX야!" 여기서 밀리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퇴학당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던 것이다. 때 아닌 난투극이 벌어졌고, 달려온 담임이 단 한 방으로 상황을 종료시켰다. "어머나, 우리 시골에서도 잉크 병은 니미뽕이거든." 충청도 출신 김수자 선생님의 기막힌 순발력이 위기의 김수미를 살렸다. 얘기는 지금부터다.

이듬해 김수미는 백일장대회에서 그때 쇠때와 니미뽕 사건을 대담 글로 썼다. 제목이 이렇다.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갈래?' 그제 장원을 탄 문제의 글이다. 소녀의 센터멘탈리즘이나 그럴싸한 문학적 헛소리 대신 리얼리티로 승부를 낸 셈일까? 더 대박은 아침 조례 때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면서 "그동안 쇠때라고 놀린 거 사과합니다. 여러분도 다 사과하세요"라

며 절을 한 사건이다. 맞아. 그에게 글은 그때도 지금도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가 대학 국문과를 졸업해 작가의 꿈을 꾀던 것도 자연스러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김수미는 초 등생 때 간접 표어 공모전에서 상도 탔던 경력도 있다. 당시 부상으로 고가품인 아이디얼미싱과 쌀 한 가마니도 챙겼다. 그 전에 간접 허위신고 사건으로 흡연 연여터졌던 꼬마 김수미 집념의 승리였다. 그런 데 당시 수상상 표어가 놀랐다.

'열 사람도 다시 보자. 수상하면 신고하자' 한 시절을 풍미했던 표어가 꼬마 김수미의 작품이었다니. 아버지가 재능을 알아보고 막내딸의 서울 유학을 결심했던 것도 이해 못할 게 없다. 농사짓던 아버지는 한 여름 원두막에서 한용운의 '임의 침묵'을 활활 낭송하던 분이셨다. 그런 그가 고구마밭을 팔아 막내딸

유학 자금을 대겠다는 큰 결심을 했던 것이다.

1960년대 초 서울 남산 해방촌에 쪽방을 얻어 지취 생활하던 여중생 김수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기서 물어보자. 만일 그가 대학에 성공적으로 입학했을 경우 박완서 같은 큰 작가가 됐을까? 그건 보장 못한다. 지나치게 먹물을 먹은 나머지 '문단이란 감옥'에 갇혀 자기 특색을 잃어버린 채 고만고만한 글쟁이로 전락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분명한 게 있다. 우리말에 대한 욕망, 문학에 대한 갈증을 김수미처럼 풀어 온 사람도 드물다. 그는 옛 산문에서 뜻밖에도 여성시인 노천명의 옛시에 등장하는 '눗양푼의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란 표현이 얼마나 멋진가를 고백한 바 있다. 오래 잊고 살던 시, 노천명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를 다시 읽어 봤다. 너무 좋았다. 김수미의 숨은 정서도 짐작됐다.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부영이가 우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눗양푼의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우 나는 산골 얘기를 하면/ 삼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문학이 죽은 시대, 예전보다는 썩 잘살지만 모든 게 심드렁해졌다. 이런 때 김수미의 산문을 보며 썩 특별한 경험을 했음을 나는 이 지면에서 전했다. 이 참에 희망 사항도 밝힌다. 김수미, 당신 이참에 자서전 하나 써 내길 바란다. 특히 가장 행복했다는 유년 시절을 정교하게 복원해 달라. 잘하면 유년 시절 회고만큼은 전편 '태평천하'의 채만식에 비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날 수 있다. 채만식도 전북 군산, 정확하게는 옥구 출신이다.

'돈 방식' 오른 은행들 이제는 상생 나서라



데일리 Talk

윤승준
경제부 기자

은행들이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돈 방식'에 오르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작년 한 해 55조9000억 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다. 1년 전보다 9조9000억 원, 2년 전보다는 14조7000억 원 불어나 규모다.

별다른 기술은 없었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식이었다. 이를 통해 순이익만 18조5000억 원을 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순익' 기록이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듯이 은행들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직전인 2021년 7월 1992조 원이던 예금은행 대출금 잔액은 2022년 12월 2169조 원으로 200

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때 대출금리는 2.77%에서 5.57%로 두 배 이상 올라갔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예년보다 짝짤한 이자를 챙겼다는 얘기다.

반면 비(非)이자이익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020년 7조3000억 원에서 2021년 7조 원, 2022년 3조4000억 원으로 줄곧 감소했다. 이를 종합하면 은행들의 호실적은 소수 과점체제 아래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거둔 성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임직원들 배불리기에 급급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소득(급여·상여)은 1억1006만 원으로 2년 전(9841만 원)보다 11.8% 늘어났다. 혁신 금융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 임직원도 평균 1억1376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회사를 떠나는 이들에게도 돈을 두둑이 챙겨 줬다. 지난해 5대 은행 모두 희망퇴직을 실시해 2357명을

떠나보냈다. 희망퇴직자들이 받은 희망퇴직금은 평균 3억5548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본퇴직금까지 합하면 희망퇴직자들이 받은 퇴직금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은행 임직원과 달랐다. 은행에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는 차주들이다. 성과급의 원천이기도 한 이들은 은행들이 '이자 호황'을 누릴 때 배에 찌들리는 나날을 보냈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2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8% 줄었다. 고금리로 감당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 여윌 돈이 줄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자영업자 수는 437만 명으로 15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고금리만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2021년 7월 3.52%에서 작년 말 6.19%로 3%p 가까이 급등한 것을 보면 자영업자들

의 고통을 가중하는 데 한몫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은행들이 사기업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의 보호 하에 수익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인터넷 전문은행 3곳을 빼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인가를 내준 곳은 전무하지 않은가. 또 공기업을 구하듯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이 부도 위기를 겪을 때 공적자금 168조 원을 투입해 여러 은행을 살렸다.

이제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상생금융에 나서려 한다. 금융당국과 별개로 빛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이자 인하나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임대료 지원 및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 그 방안일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얘기가 있다. 이를 계기로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매몰되기보다는 비금융 사업에 힘을 실었으면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줘야 할 것이다.

sjyoon@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주필 황중택
인쇄인 임채정 편집국장 곽동석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꿈이 깃든 기술력에
기술보증기금이 희망을 **DREAM**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개방형 기술혁신 전담 기관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기보가 지원합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 (http://tb.kibo.or.kr)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등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IBO 기술보증기금